

## 5 결론

사회적경제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제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그 논의를 안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는 충남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실체가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논의가 충남의 내발적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앞선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때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정부, 기업, 시민영역들의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에서도 다양한 조직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서로 보완할 때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사회투자'가 있을 때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내발적 발전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충남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Defourny, J & Nyssens, M.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Routledge. London.  
OECD, (1999). 「Social Enterprises」. OECD.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제75호, 2009.

# 충남 사회적경제의 실태와 정책 방향

임준홍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수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1. 서론

외환위기(IMF) 이후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 진입하였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82.2%(수출 43.4%, 수입 38.8%)로 G20 회원국(평균 43.3%) 중 1위이며, 최근,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효과 등에 힘입어 충남의 GRDP(2009년)는 3,370만원으로 울산(4,622만원)에 이어 전국 2위이며(전국 평균의 2,187만원), 그 성장률은 전국 1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현장인 삼성 LCD 공장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민의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일자리문제도 전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 충남도민은 과연 타시도민에 비해 행복할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은 바로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회적경제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충남 사회적경제의 실태를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충남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사회적경제란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나 협회, 재단 등 제3섹터가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NGO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정책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형 사

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민선5기 공약에서 충남형 사회적기업 200개 육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였다.

〈표 1〉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예)

| 사업명               | 관련부처                  | 주요 사업내용  | 특징                            |
|-------------------|-----------------------|--|-------------------------------|
| 사회적기업<br>육성사업     | 노동부<br>(2007년)        |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br>- 2010년 현재 268개 사회적기업 인증, 각종 경영·재정·홍보사업지원 |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서비스 제공           |
| 자립형<br>지역공동체사업    | 행정안전부<br>(2010년)      |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 -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병행        |
| 커뮤니티<br>비즈니스사업    | 지식경제부<br>(2010년)      | - 커뮤니티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사업                                    | - 시범사업                        |
| 자활공동체사업           | 보건복지부<br>(2011년)      | - 기초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 전개 (2000년)<br>- 2011년부터 자활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지원 본격화        | - 자활공동체의 자립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의 전환 유도 |
| 농어촌공동체회사<br>활성화사업 | 농림수산식품부<br>(2011년 예정) | - 노동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농촌조직 진출의 한계 극복   |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

특히, 충남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증 사회적기업 중심의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TF팀’을 설치하고, 그 실행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충남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에서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정책개발을 위해 ‘사회적경제연구회’<sup>1)</sup>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충남의 사회적경제 실태

1) 충남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현황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의

1)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9회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연구회는 도의회의원, 공무원, 교수, 연구원, 사회적기업가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의, 해외사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외에 협동조합, 자활근로사업단 등이 있으며, 더 넓게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있지만 이들 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유럽에 비해서는 역할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표 2〉 충남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현황

| 구 분            | 세부설명                     | 조직수 |
|----------------|--------------------------|-----|
| 공공지원형<br>일자리사업 |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 15  |
|                | ② 노인생산공동체                | 243 |
|                | ③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     |
|                | ④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     |
| 공공지원형<br>사회적기업 | ⑤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 81  |
|                | ⑥ 노동부 사회적기업              | 16  |
|                | ⑦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 37  |
|                | ⑧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 0   |
|                | ⑨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     |
| 민간지원기관         | ⑩ 대안금융기관                 | 3   |
| 사회적<br>경제조직    | ⑪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 359 |
|                | ⑫ 노동자협동조합                |     |
|                | ⑬ 소비생활협동조합               | 17  |
|                | ⑭ 농협                     | 426 |
|                | ⑮ 수협                     | 8   |
|                | ⑯ 산림조합                   | 18  |
|                | ⑰ 신협                     | 105 |
|                | ⑱ 새마을금고                  | 62  |
|                | ⑲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희망업체       | 116 |

2) 충남 사회적경제 실증분석<sup>2)</sup>

충남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활동 특성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문가 워크숍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8개 조직을 선정하고, 단체별로 1박 2일의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 주요 사업과 목표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2) 본 내용은 지난 4월 충남발전연구원이 사회적경제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사)씨즈'에 의뢰한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조사'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표 3〉 사례조사 대상업체

| 분류            | 단체명       | 지역  | 조직 형태 | 사업 내용              |
|---------------|-----------|-----|-------|--------------------|
| 마을기업 (1)      | 홍동 마을활력소  | 홍성군 | 비영리단체 | 마을자립지원센터 / 네트워크 사업 |
| 사회적 기업<br>(4) | 얼굴 있는 먹거리 | 서천군 | 영농조합  |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
|               | 즐거운 밥상    | 천안시 | 주식회사  | 도시락, 뷔페            |
|               | 온양온천 시장   | 아산시 | 주식회사  | 재래시장 활성화           |
|               | 난장 앤 판    | 천안시 | 주식회사  | 문화 예술              |
| 시민단체          | 천안 KYC    | 천안시 | 시민단체  | 지역사회 시민운동          |
| 심화조사          | 아름다운 동행   | 천안시 | 주식회사  | 외식업 / 수익 기부        |
|               | 산새        | 천안시 | 주식회사  | 외식업 / 인문학 강좌       |

은 조직의 목표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제공, 로컬푸드 유통, 시장활성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대상 역시 지역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4〉 조직의 주요 사업내용과 목표

| 단체명      | 사업 내용                        | 조직 목표   |
|----------|------------------------------|---|
| 즐거운 밥상   | 결식아동 도시락 사업<br>일반 도시락 및 외식사업 | 1. 결식아동 영양서비스 제공<br>2. 저소득층 평생일터 실현                   |
| 얼굴있는 먹거리 | 농산물 생산 유통                    | 1. 로컬푸드 유통<br>2. 소농 고령농 소득사업 지원<br>3. 청년실업 해소         |
| 온양온천 시장  | 시장 활성화 사업                    | 1. 시장 활성화 편의서비스 제공<br>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br>3. 시장 유통구조 개선 |
| 난장앤판     | 전통 난장 공연<br>국악기 제조 유통 준비     | 1. 전통 예술 계승 보급<br>2. 문화예술 관련 청년실업 해소                  |
| 마을활력소    | 지역 네트워크 및 교육                 | 1. 지역 활성화<br>2. 지역 공동체 사업 지원 및 인적 자원 발굴, 인큐베이팅        |
| 천안KYC    | 지역사회 시민운동                    | 1.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br>2. 양극화 해소                           |
| 아름다운 동행  | 희망 칼국수 외식사업                  | 1. 수익의 사회 환원<br>2.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 및 지원                   |
| 산새       | 돈까스, 커피 등 외식사업<br>북카페 운영     | 1. 지역 내 인문학 센터<br>2. 워커즈 컬렉티브<br>3. 바른 먹거리 실현         |

(2) 일자리 창출 현황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특성을 보면 고용규모는 10명 정도로 크지 않고, 급여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모두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여성고용, 고령자를 고용한 비중이 높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조사 대상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력의 모두는 지역민이고, 이 중 절반 가깝게는 취약계층이고, 50대 이상의 고령자 역시 30% 이상이다. 이는 소득이나 업무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표 5〉 일자리 규모와 특성

| 단체명             | 일자리 규모       | 거주지     | 월 평균 급여  | 취약계층 유무        |
|-----------------|--------------|---------|----------|----------------|
| 즐거운 밥상          | 11명 (남4,여7)  | 천안시     | 170만원    | 6명 (수급자 등 저소득) |
| 얼굴있는 먹거리        | 7명 (남5,여2)   | 서천군     | 97만6천원   | 3명 (고령자, 청년실업) |
| 온양온천시장          | 16명 (남5,여11) | 아산시     | 96만원     | 15명 (고령자, 저소득) |
| 난장앤판            | 8명 (남7,여1)   | 천안시     | 100만원    | 2명 (청년실업)      |
| 마을활력소           | 7명 (남2,여5)   | 홍성군     | 80만원     | -              |
| 아름다운 동행 (희망칼국수) | 6명 (남1,여5)   | 천안시     | 160만원    | -              |
| 산새              | 6명 (남2,여4)   | 천안시     | 180만원    | -              |
| 합계              | 61명 (평균8명)   | 지역 100% | 평균 115만원 | 26명            |

| 성별      |    | 연령대    |     |     |      |
|---------|----|--------|-----|-----|------|
| 남       | 여  |        |     |     |      |
| 26      | 35 | 50대 이상 | 40대 | 30대 | 20대  |
|         |    | 22     | 24  | 5   | 10   |
| 취약계층 내용 |    | 고령자    | 저소득 | 한부모 | 청년실업 |
|         |    | 12     | 9   | 1   | 4    |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생산과 서비스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충남도 내 공급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운 비율로 지역사회에 순환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성화 될 때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외부 대기업 유치 시 낮은 지역민 고용율이나 자본의 외부유출 등과 대비되는 경제 활동 성과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와의 연대구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연대구조를 편의상 정부영역, 기업영역, 시민영역으로 나누어 사례를 통

〈표 6〉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재무현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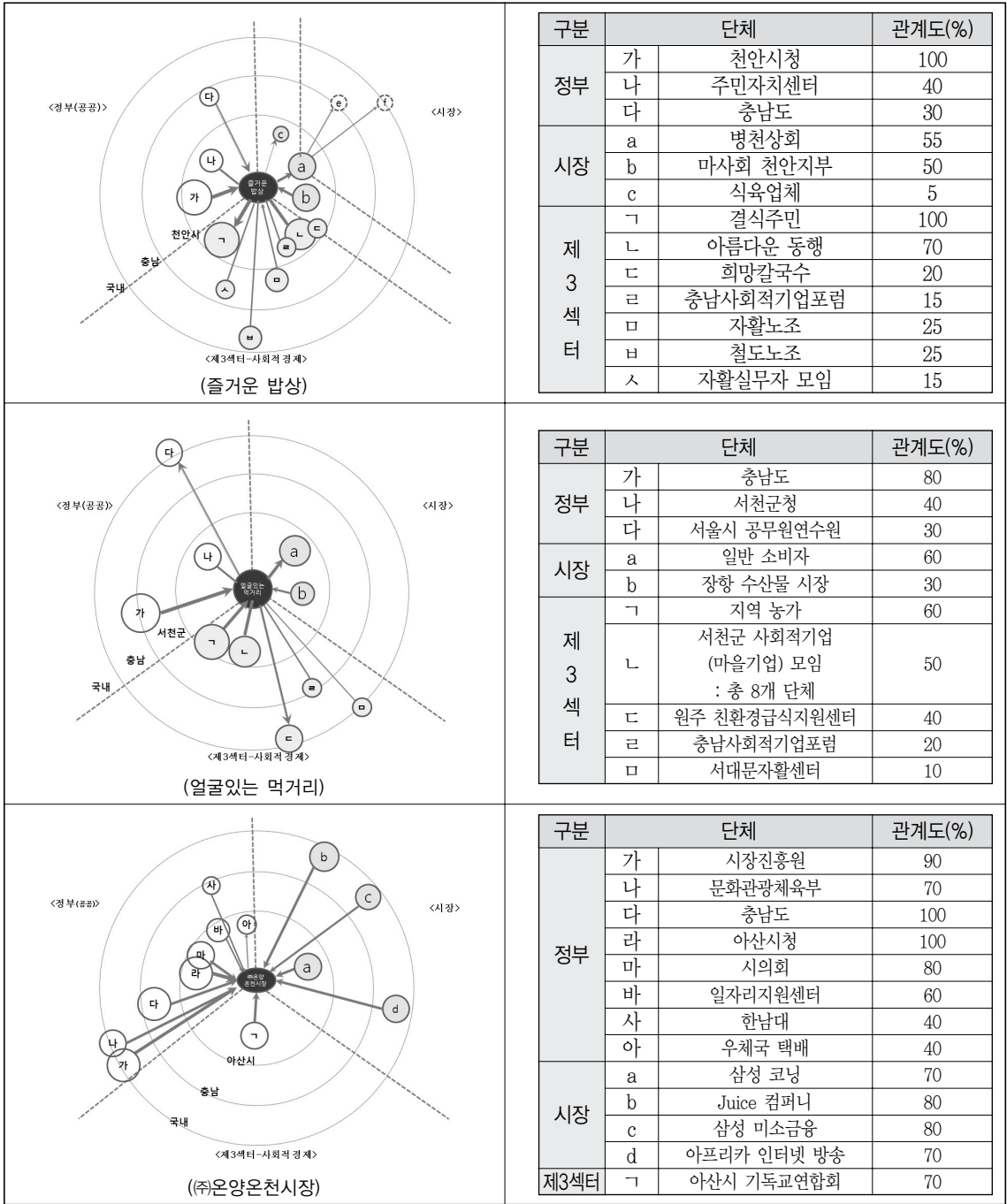
| 단체명            | 자본금              | 매출규모<br>( ' 10 or ' 11 추정치) | 생산(서비스) 제공 지역 |     |
|----------------|------------------|-----------------------------|---------------|-----|
|                |                  |                             | 충남도내          | 기타  |
| 즐거운 밥상         | 3천만              | 5억5천만                       | 100%          |     |
| 얼굴있는 먹거리       | 8백만              | 1억5천만                       | 70%           | 30% |
| 마을활력소          | 천5백만             | 1억8백만                       | 80%           | 20% |
| 온양온천시장         | 4천만              | 1억2천만                       | 100%          |     |
| 난장애판           | 1천만              | 8천만                         | 70%           | 30% |
| 천안 KYC         | 회원 2010년 기준 324명 |                             | 100%          |     |
| 아름다운동행 (희망칼국수) | 1억2천만            | 2억8천만                       | 100%          |     |
| 산새             | 5백만              | 1억8천만                       | 100%          |     |
| 평균             | 3,257만원          | 2억원                         | 88%           |     |

해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과의 연대관계는 재정지원과 기타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업과의 관계는 주로 시장제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영역에 대한 관계는 대다수가 연대축진, 중개활동 등 실질적인 자원의 교류보다는 협력관계 구축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관계유형뿐만 아니라 연계의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공공영역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충남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단체가 소재한 해당 시·군, 충남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비중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광범위한 연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연대축진 등 기타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연대관계가 공간적으로 보다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시장제공 등을 위한 연대관계는 해당 시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일부만 충남과 전국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조직은 초기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만으로도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의 기존 기업과 차별성을 가지는 지역사회 기여도를 알 수 있다.



※ 관계도는 인터뷰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관계도임.

〈그림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구조(예)



## 4.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단편적이지만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효과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결정 참여자와 도민의 공감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는 우리 지역경제를 순환과 공생의 경제로 이끌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만들고, 이 속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지역민 특히,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조직들의 다양한 활동과 연대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전망 속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이점들은 전술한 사례를 통해서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된다. 도민들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정책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차근차근 끈기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모두 인내심을 갖고 응원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회에 걸쳐 이루어진 '충남 사회적경제 연구회'의 발제 및 토론내용, 선진사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 정책방향과 7가지 시책을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가 일반 시장경제와 가장 큰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람 중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사회적경제 관련 리더와 컨설턴트 등 인재육성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요구를 담은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하다. 우선 사회적경제를 정부정책 하의 단순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넘어 협동조합의 재역할 찾기,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한 저변 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홍보, 마케팅, 유통 등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과는 지역에 뿌려지고, 순환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꼭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펀드 육성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안

| 정책방향              | 시책                                | 세부 사업(예)   |
|-------------------|-----------------------------------|--|
|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 육성                  | - 사회적경제 리더육성사업<br>- 사회적경제 청년 인력 양성사업(청년 인턴사업)<br>- 사회적경제 전문 컨설턴트 육성사업  |
|                   | -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연대 강화)      | - 사회적경제 협의회 지원사업<br>- 사회적경제 기업, 시민 연결사업(네트워크 구축)<br>- 사회적경제 자원봉사자 연계사업(프로보노)   |
| 사회적경제 기반 (사업성) 강화 | - 사회적경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 - 중앙정부 사회적기업 통합 지원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br>- 사회적경제 대상 확대사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등)<br>- 사회적경제 선도(우수)지역 육성사업<br>- 사회적경제 전략분야 육성사업<br>- 사회적경제 도민 제안 공모사업 |
|                   | -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의 사업성 (수익성) 강화 지원   |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사업(쇼룸, 전문매장운영)<br>- 사회적경제 브랜드 육성사업   |
|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강화     |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센터 기능 강화      |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전문가 채용, 공무원 교육 등)<br>- 충남형 사회적경제 지정제도 운영<br>-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기능강화 (연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
|                   |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기금 조성 등) | - 유사 정책자금 활용방안 마련<br>-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자금(펀드) 조성  |
|                   |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제정(충남도, 시군)   |

## 5. 결론

사회적경제는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출발하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도 없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도 어렵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커다란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좌절할 때, 낙오될 때 우리는 그 나무에 기대어 쉴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그 결과가 도민의 행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총량적으로 부족하여, 도민의 공감대와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사회적경제를 키워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국가위기 속에서 항상 논의되어 왔다. 이는 결국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이들 대외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대안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적경제가 주목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바탕이 '사람중심'의 사고에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이제껏 시장경제가 강조하는 '자본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도민이 행복해지고, 지역사회는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에, 사회적경제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사)씨즈, 2011.7,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조사」  
충청남도, 2010.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충청남도  
임준홍·김양중·송두범, 2010.9, 「성공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 월간 충남경제  
이용재·임준홍, 2009.12,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2009.6,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충남리포트 제19호

## 충남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이은애 | 사단법인 seed's 대표

### 1. 서론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포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 뿐 아니라 행안부·지경부·농림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관련 정책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며, 지방자치단체들 역시도 사회적경제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말 현재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적경제의 고용규모를 보면, 유럽연합 22개국에서 평균 6.7%<sup>1)</sup>를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은 절반 수준인 3.8%<sup>2)</sup>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내 사회적경제의 양적확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가늠해보게 된다. 물론 유럽은 이미 1850년대부터 시민사회 주도하에 근대적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경기침체기라던지 독일 통일기와 같은 변화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가 총고용의 15% 이상을 담보했던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는 글로벌 시장경제 확장 속에서 지역경제 위기 가중·내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서민경제의 중요성 부각·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급감·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고령화 등으로 증가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커뮤니티 재건 필요·지방경제의 대외 의존도 경감과 지역내 사회적 자본 증식의 필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혁신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보다 용이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충남의 지역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어떠한 태도로 현 상황을 인식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2007,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보고서, 유럽연합 22개국 고용의 평균 6.7%, 기존 유럽연합 가입 16개국의 고용비중 7%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08, 김혜연, 노동연구원, 협동조합을 제외한 시민사회섹터 고용이 전체의 3.8%(83만명)로 조사되었다.